

그 사람이 너였으면...

어떠한 사람인지는 나도 잘 몰라.
그저 너기만을 바래왔던걸 느꼈을 뿐이야.
간절히... 간절히...
내가 기다리던 그사람이 너기기를.
왜냐면
내가 널 무척 좋아하니까...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할아버님께서 안 계시지만 언제나 저희와 함께한 현미원분, 문성현 1,2,3 책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할아버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에 헌신하셨는지에 다 용납하셨어 합드실텐데도 헌것이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너무 감동적이고 계속 읽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님의 축복덕분에 제가 태어나서 할아버님을 만나고 말씀들에서 너무 영광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수이자 주일 배신한 뉘에가해서 결성을 먼저 끼어온 것이 감동적이었고 입수지만 다 읽고 마치고 헤어질 형제가 다시 만나는 것처럼 먼저 끼어온 주권이 대단해요. 그리고 고운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고 또 할아버님께서는 10명이 손을 놓아서 많이 합드실텐데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목숨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것이 너무 대단한 존경합니다. 그리고 직접 개산함을 겪어어도 교회 식구들을 위해 놓지두고 같이 나누어 먹고 자기 보다는 남을 위해 먼저 헌 바를 나가서 먼저 배려를 할 할아버님 할아버님께서는



설레임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너.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알게 해준 너.
 내가 이쁘다는 걸 알게 해준 너.
 그런 널 사랑하는 나...



I Love You.

6.25 전쟁으로 귀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고 쓸까
 를 한말도 하지 않고 좋아비님 배고프실거니가
 남겨둔 숙제의 만지기며고 남은것은 다 모든
 아주 좋아신 좋아비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호자인 좋아비님께서 영혼하게 고문
 받고 6번이나 감옥에가셨어 너무 슬프고 가슴아프습니다. 그리고 영
 게 좋은 분께서 돌아가신 것이 너무되고 많은 사람이 울의를
 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영혼 사랑이 있어서 그런 남
 여까지 영혼 돌을 베풀것이 다반하고 받은 단 1개로 베풀신것이
 너무대단하시고 헤아릴 영혼 좋은분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
 진 사람이있으면 입어서 하늘까지 달려서 흑비늘 반에
 대안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한 새미의 막 놀리
 치는데 좋아비님은 이렇게 베풀신것을 알게된 후부터는 너무죄를
 늘고 살지 않습시다. 하옵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좋아비님까지
 는 언제든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어머님께서 온사면사기 말씀을 전하기가 좋아비님까지도 안심어도
 좋으신 참어머님까지도 돌아가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 나오실것이면
 좋고 이제는 좋아비님 고생하셨으니 영계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복수
 습시오. 그리고 참어머님까지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도하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부모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저는 포경성을 통일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 같이 할수 있
 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닌 자라도 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독서로도 쓰고 그에게 대한 것은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참아버님, 참어머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2017년 1/8 3기 무한우울림

